불교계 빈곤청소년 돕기 '활발발'

아름다운동행 등
지원 프로그램 이어져

동행 28일 기금모음 걷기대회
여성개발원 가정방문 교육 진행
자운영센터 대안가정 모델로



불교계의 빈곤청소년 돕기 활동이 활발하다. 빈곤 아동 ·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건강, 학습, 행동의 문제와 함께 학업 부진, 낮은 자존감 등으로 인해 발달적 문제를 초래하며, 빈곤가정 부모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심리 및 신체적 피로는 자녀와의 올바른 상호작용과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불교계의 이러한 빈곤 아동 ·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심리 상담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생활지원 등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먼저 조계종 대표 공익법인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10월 28일 '야행프로젝트-우리 함께 걸을까' 행사를 개최한다.

'우리 함께 걸을까' 행사는 야행 프로젝트로 빈곤 속에 성장하고 있는 아동 ·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마련 차원에서 진행된다. 빈곤 환경 속에 있는 아동 · 청소년들의 발달적 · 심리적 위기를 예방하고,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세상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는 취지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가을을 맞이하여, 각박해져가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주변의 이웃들을 돌이켜보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동 · 청소년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깊어지는 가을 저녁 가족들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행사취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번 '우리 함께 걸을까' 걷기행사는 조계사에서 출발하여, 청계천, 살곶이체육공원, 영동대교, 봉은사를 도착하는 코스로 총 18km로, 코스 중간 참가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28일까지 참가자 1,00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 혹은 정기후원 5,000원 이상이다. 참가비는 국내 · 외 아동 ·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접수는 9월 29일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www.dreaminus.org)의 신청 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02)737-9595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노숙령)은 올해 서울시한부모센터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혼모 자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미혼모 가정의 사례를 센터 측에 제공하면 센터가 교육을, 여성개발원의 봉사단이 연계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미혼모 생활설계전문가 과정을 연데 이어 최근 미혼모 자녀 방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산 관해사가 운영하는 자운영청소년회복센터는 청소년 대안가정의 롤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불교계 첫 대안가정으로 2010년 10월 설립된 이후 6개월간 소년들의 취업교육과 인성교육을 진행해 재범률을 30% 이하 낮추고 있다. 현재 10여 명의 아이들이 머무르며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있다.

조경숙 자운영청소년센터장은 "부모은중경 사경을 비롯해 다양한 불교 사상을 활용해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전북불교네트워크도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도보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이 순례는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1:1로 멘토링을 설정해 지역 문화유산을 순례하며 이들의 교육과 사회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예슬 서울시 한부모센터 팀장은 "사회 발달에 따라 다양한 가정 형태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빈곤 · 한부모 상황 등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다.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의 길 '창업' 생각한다면 서울형MC가 해법!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성공창업사례 ⑥ 김명주 미미쿡 대표



여성들은 결혼 후 임신 · 출산 · 육아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종종 있다. 기혼 여성의 근로여건 보장은 과거보다 많이 나아진 편이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 이에 생겨난 말이 '경력단절여성'이다.

이러한 경력단절여성들이 최근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창업이다. 경제생활은 유지하되 육아와 가족 돌봄을 위한 시간을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하지만 문제는 창업 자금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교육은 빈번히 실시하지만, 자금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비한 편이다.

이 가운데 서울 노원구에서 동물 사료 제조업체 '미미쿡'을 운영하는 김명주 대표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이하 서울형MC)을 통해 사업 자금 대출을 지원받아 눈길을 끈다.

김 대표는 경력여성단절이 1인 창업에 뛰어든 대표적 사례로, 창업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형MC를 통해 경영개선 자금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약 16년간 회사 생활을 했지만 잦은 야근과 업무 부담에 육아와 병행하기 힘들어 퇴직을 결정했다고. 반려견 시장의 가능성은 봤지만 자금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도 컸다고 한다.

"초기 자본금은 창업에 투자한 상황이라 운영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제품 제조를 위한 비용, 홍보비 등 운영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이때 서울형MC의 경영개선 자금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저금리,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부담도 적었습니다."

더욱이 김 대표가 시작한 반려견 시장은 막 성장하고 있는 단계로, 기반마련이 더욱 힘들었다. "북부여성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업무공간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반려견 관련 사업은 생소해 수혜를 받기 어려웠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조계종복지재단이 서울형MC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컨설팅 교육에서 사업 홍보 방법을 익혀 앞으로 '미미쿡'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홍보 방법 교육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미쿡'을 알리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애견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미 살롱펫'이라는 업체와 협력도 계획 중입니다." **박아름 기자**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무담보 저금리대출사업으로, 사업자의 자활을 돕는 금융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이 율 : 고정금리 연 1.8%
대출기간 : 총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자금지원 : 창업자금(최대 3,000만원 이내 자기자금 범위 내 지원)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신청절차 : 상담–신용정보조회–서류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현장실사–선정심의–신용보증재단 금융심사–우리은행 자금지원(대출승인)
신청문의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부문 (02)723-5101

광진구 불자 가수왕 뽑는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개관14주년 기념 선발대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노인의날과 개관 14주년을 맞이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주민 가요제 '제7회 광진구 가수왕 선발대회'를 10월 18일 실시한다.

2017 행복나눔 희망광진 한마음대축제 '제7회 광진구 가수왕 선발대회'는 광진구 지역에 연고가 있는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다.

대회서는 사전 접수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팀이 노래 경연을 벌이게 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타 지역 전문 심사위원 3명의 종합점수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 4팀을 선정하며, 식전 행사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팀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측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17 행복나눔 희망광진 한마음대축제를 통해 지역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건전한 문화로써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아동 돕기 '눈길'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일일카페 운영 수익으로 후원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 아동을 돕기 위해 나서 눈길을 끈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가섭)은 9월 30일 한솔직업체험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내 전문직업프로그램인 '디자인 아카데미'를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바리스타들이 일일카페 운영을 통해 모금한 것이다.

관장 가섭 스님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북한이탈주민의 전문교육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 지역사회에 따듯한 온정을 나누는 당당한 일원으로 거듭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김 모씨는 (성남시 정자동)은 "항상 도움을 받기만 했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매우 기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전달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사회복지 발전 이끈 유공자 찾습니다

조계종복지재단, 2017 불교사회복지 유공자 추천 접수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공헌한 실천가와 시설 · 단체를 포상하는 '2017 불교사회복지 유공자'를 추천받는다.

포상 영역은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 시설 및 단체 · 언론 · 사찰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단체운영부문'을 비롯해 실무 활동을 펼친 '사회복지발전공헌부문', '자원봉사활동부문' 총 3개로 구성된다.

접수는 10월 19일까지로, 제출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공자 시상식은 12월 7일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진행된다.

박아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조계종 원로의원 · 회주 성타

관 장 종상 주 지 종우
원 장 덕민 부주지 정문
총 무 종천 교 무 현학
재 무 성심 포 교 성요
호 법 성담 사 서 정빈
신도회장 이영숙

사부대중일동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진현동)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